



병원의 브랜드 파워, 장기이식이 좌우한다.

고대병원, 이식 잠재력 높아 무한 성장 가능해 이번달만 신장이식 2건 성공적 집도, 장기이식의 메카로 발돋움 할 터



3월 17일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아 신장이식을 시행중인 박관태 교수(왼쪽)

안암병원, 뇌사자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

이번 달 들어서만 두건의 신장 이식수술 성공시켜

안암병원은 2008년 2월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HOPO)으로 선정되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협력 하에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안암병원은 2009년 3월 처음으로 뇌사자 장기를 원내에서 적출하게 되었고, 적출된 간은 서울대 병원과 삼성병원으로 보내고, 기증된 장기 중 신장 1개는 본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어, 지난 3월 1일과 17일 등 이번 달만 두건의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다. 특히, 지난 3월 17일의 경우는 구로병원 발생 뇌사자를 안암병원에서 장기를 적출한 경우로, 이런 경우는 발생병원인 구로병원에도 신장이식의 우선권을 갖게되어 앞으로 의료원 산하병원간의 협력이 더 없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안암병원은 장기이식센터를 중심으로 뇌사판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 의료진은 물론 2명의 코디네이터등과 함께 올해 원내 뇌사자 20건 달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장기증은 수명의 2~3배 더 사는 것” 첨단의학의 결정체 장기이식, 생명을 불어넣는 의학의 종합예술

장기이식은 이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학적,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의학적으로는 이식면역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다양한 면역억제제와 새로운 이식법이 개발되는 등 이식장기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기증 장기의 심각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론형성과 장기수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식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는 더욱 많은 환자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장성호 소장은 “이식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의학의 종합예술이고 의학의 꽃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최고의 의료기술과 최선의 진료로 환자분과 가족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식센터로 거듭날 것이다” 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외과분야의 풍부한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1만명

평균신장36년, 간장2년10개월 기다려야이식받을 수 있어



국가별 인구백만명당 뇌사장기기증자수

한국 3.1명	스페인 35.1명
미국 25.5명	프랑스 22.1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전국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식대기자는 지난해 말 현재 1만 717명(신장·간장·췌장·심장·폐·췌도·소장 등 고형장기)이며, 이 가운데 2,146명이 이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식을 받은 2,146명 중 뇌사자 이식은 836명이며, 살아있는 사람을 통한 이식은 1,310명이었다. 뇌사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현황에 따르면, 기증자는 2004년 86명, 2007년 148명에서 2008년 256명으로 급증했다.

- 2면에 계속 -

박관태 교수 인터뷰

이식혈관외과



고려대 안암병원의 장기이식 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식 장기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2년 이내에 췌장, 간, 심장이식 등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난도 이식을 시행하고, 이식 관련 첨단연구에서도 성과를 올리면, 다양한 독자적인 임상연구 실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이식의 특성상 여러 진료부서는 물론 행정부서와 의료원 산하 병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요소입니다. 사실 고려대의료원의 장기이식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수준의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자랑하는 심혈관센터 및 인공장기센터는 심장관련 환자와 첨단 의공학 연구노하우등을 동원해 심장이식의 수월성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뇨센터 및 내분비내과와의 협진을 통한 췌장이식, 소화기센터의 풍부한 환자 풀을 활용한 간이식, 비교적 큰 신장내과 환자의 유치를 통한 신장이식 등은 다양한 고대의 네트워크를 통해 풍부한 수혜 대상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식수술의 복잡한 의학적, 행정적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식 관련 제반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조직은행 개설시 필요 장비 및 인력 확보 및 장기이식센터의 공간 문제로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생체이식활성화를 위해 순수기증자 발굴 및 지원은 물론, 뇌사자 발굴을 극대화해 관련 장기이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도 병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는 만큼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앞으로 장기 기증자의 고귀한 생명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기이식은 관련 인프리카충, 외과분야 거의 전 영역의 의료진과의 협력은 물론, 특화된 수술팀, 전문코디네이터 등과의 팀웍을 통해 장기이식분야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1면에 이어 -



앞줄 사진 왼쪽부터, 장기이식센터 정재승 간사(흉부외과, 심장이식), 김병수 부소장(중앙혈액내과, 조혈모세포 이식), 장성호 소장(마취통증의학과), 박관태 부소장(이식혈관외과, 신장·췌장·간 이식)

각막을 포함한 뇌사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은 2004년 363건에서 2007년 675건, 2008년 114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해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신장의 경우 평균 3년 6개월, 간장의 경우 평균 2년 10개월을 기다렸다. 장기별 이식 대기자는 신장 7,641명, 간장 2,596명, 췌장 314명, 심장 127명, 폐 31명, 췌도 5명, 소장 3명으로 집계됐다.

병원의 브랜드 파워 어디서 기인하나?

남들이 잘못하는 성과 올렸을 때, 그 가치 크게 빛나.

병원의 브랜드 파워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친절한 병원, 진료를 잘 하는 병원, 연구를 잘 하는 병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라는 명제에 이의를 달 만한 사람은 없다. 그것도 남들이 잘 못하는 성과를 올렸을 때 그 가치는 크게 빛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기이식은 병원 브랜드파워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 서울의 모 병원의 경우 간이식팀의 성적은 그 병원의 브랜드 파워의 핵심을 차지한다. 간이식 같은 어려운 수술을 잘 하는 병원은 다른 모든 수술도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이것이 수술 잘 하는 병원, 즉 '4차 병원'이라는 병원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톱 클래스 대학병원의 경우 장기이식 분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식을 안 할 경우, 이식도 못하는 병원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이는 환자와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명성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높다. 또한, 장기이식은 직원들의 병원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 고양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 

문의 | 장기이식센터 (02) 920-6858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로버트 테스트(1926~1994, 미국의 시인)

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 기능이 정지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의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되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몸을 산 형제를 돕기 위한 충만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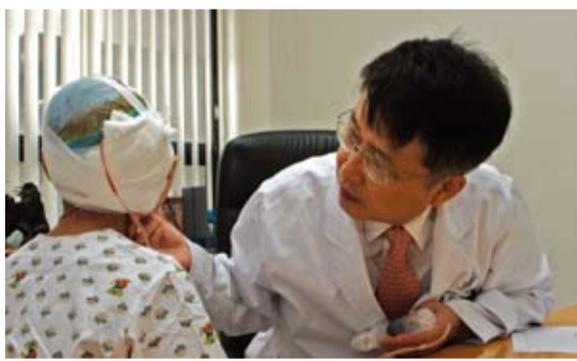
나의 눈은 해질 때 먼 노을을, 친잔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서 그가 먼 훗날 손자들의 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주일 혈액 정화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시고 나의 뼈와 근육의 섬유와 신경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아이에게 주어 걷게 하십시오. 나의 뇌세포로 말 못하던 소년이 합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년과 그녀의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들꽃들이 무성히 자라도록 바람에 뿌려 주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매장해야 한다면 나의 실수들을, 나의 낙담함, 나의 형제들에 대한 편견들을 매장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들은 악마에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단신들이 필요한 때 한 나의 친절한 행동과 말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을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스페셜 리포트 1

아름다운 귀를 빚어내는 사람들, 안암병원 귀성형연구센터



박철 교수가 소이증 환자의 수술 후 회복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귀성형연구센터 의료진을 비롯한 치료팀

귀성형? 성형수술하면 쌍꺼풀이나 코, 턱 수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금 낯설게 들리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이증처럼 선천적으로 귀 형태가 거의 없거나, 모양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거나, 화상, 외상 등에 의해 귀가 변형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할 만큼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성형수술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계 최고의 기술과 다년간 축적된 연구로 아름다운 귀를 선물하고 있는 곳, 바로 안암병원 귀성형연구센터(소장 박철, 성형외과)다.

세계 최고의 귀성형 전문가, 박철 교수

사람들의 귀만 연구한지 17년. 그동안 수술만 5000여회, 그를 통해 새로운 귀를 얻은 사람만도 2200명에 이른다. 안암병원 귀성형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성형외과 박철교수의 경력이다. 이외에도 귀에 대한 논문을 국제 최고 성형외과 학회지에 30여 개 발표했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귀성형법만 15가지 이상 이른

다. 이 정도면 귀성형수술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박철 교수는 귀성형 특히 소이증 수술에 있어서는 미국의 브랜트 박사, 일본의 나가타 박사와 함께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가 개발한 귀성형법은 성형외과 교과서나 학회지 등에 실려 전 세계 귀 성형의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귀를 빚어 새 삶을 찾아주는 곳, 귀성형연구센터

귀성형연구센터를 가장 많이 찾는 환자는 선천적으로 귀 형태가 거의 없거나, 귀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태어나는 '소이증' 환자들이다. 이러한 소이증 환자들은, 귀 모양이 기형이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얼굴 일부가 덜 발달되는 데서 찾아오는 불편함 이외에도 정신적·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압박을 받게 된다. 귀는 눈에 잘 띄어 타인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이증은 선천적인 증상이기 때

문에 어릴 적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 받기 쉽다. 귀성형연구센터 박철교수팀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감쪽같이 귀를 만들어 선사한다. 가슴 연골을 떼어 귀 모양을 만들어 이식해주는 것. 수술은 6개월마다 한번씩 총 2~3번 정도에 걸쳐 이루어진다. 비록 청력에 대한 치료는 이비인후과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만, 소이증 환자들은 예쁜 귀 모양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새 삶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한다.

부모의 마음과, 최고의 기술로 귀를 만들어갈 터

소이증 이외에도 매몰귀, 돌출귀, 귓불 기형, 이주 기형(귀 앞 부분이 작은 혹처럼 커지는 증상), 외상·화상에 의한 귀 손실 등 귀성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귀성형연구센터는 이들에게 새 귀를 선물하는 산타할아버지이고, 새로운 삶을 열어 주는 제2의 부모님 같은 곳이다. 박 철 교수는 "내 귀를 떼어 아이에게 붙여 달라" 는 환자 보호자들의 간청을 듣고 귀성형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이제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지만 늘 그 보호자들의 간청을 생각하며 연구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귀성형연구센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귀 전문치료센터로, 연구, 임상 등의 영역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왔다. 또한, 세계적으로 5명 정도밖에 없는 귀 전문 치료 의사인 박 철 교수가 전문간호사 등과의 최정예 치료팀을 일 귀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들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문의 | 성형외과 (02) 920-5440

중국이 반한, 코리아 병원

북경대 계서광업총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벤치마킹 위해 전격방문



계서광업총병원 관계자는 안암병원 각 센터와 진료지원부서 등을 둘러보며



선진화된 의료인프라 보고 '한~하우!' (최고) 연발 선진화된 진료시스템 전수 통해 중국 내 의료원 위상 정립에 기여할 터

중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중 하나인 북경대학병원 의료그룹 계서광업총병원이 벤치마킹을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는 허금 당서기(방문단 단장)를 비롯해 류효무 부원장, 광도룡 외과 주임의사, 장아신 내과 주임의사, 류옥한 간호부장 등 핵심 보직자 7명이 총 출동해 고려대 안암병원의 선진 의료프로세스를 배우고 인프라를 둘러봤다. 2월 11일 방한한 방문단은 여장을 풀고, 12일부터 안암병원 방문투어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병원장 인사말과 병원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심혈관센터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MRI 및 CT실, 핵의학과 PET-CT, 방사선종양학과 토모센터 등 핵심 의료인프라 등을 모두 둘러봤다. 또한, 유방센터, 스포츠의학센터, 재활의학센터, 응급의학센터 등 특성화센터는 물론, 의료정보팀,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의료지원부서, 원무팀, 고객센터팀, 총무팀 등 행정부서도 여러 질문을 던지며 관심 있게 둘러봤다. 안암병원을 둘러본 계서광업총병원 방문단은 연신 '한~하우!' (최고) 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안암병원의 뛰어난 연구역량과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을 하루 빨리 중국에 구축하고 싶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허금 단장은 "병원을 둘러보니,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면서 "한국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에 감탄했으며 안암병원의 선도적 의료시스템과 최첨단 의료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었다.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적극 도입해 계서광업총병원도 안암병원과 같은 우수한 의료기

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13일 오후에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계서 광업총병원 보직자들이 그동안 병원을 둘러보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각 병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향후, 안암병원은 계서광업총병원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진의료기술 전수를 아낌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내 고대의료원의 이미지 고취 및 입지 강화에 역점을 뒤 각종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 장춘시 간호부장단, 고려대 안암병원 방문 선진화된 간호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 전수

또한, 안암병원은 지난 2월 13일, 중국 장춘시에서 방한한 22명으로 구성된 간호부장단 일행의 내방을 받았다. 이번 만남은 안암병원의 선진화된 간호관리 시스템 전반을 벤치마킹 하기위한 방문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벤치마킹에서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장연희)는 행정관리, 간호기술교육, 학술교류, 간호사양육, 간호서비스, 국내외연수 등 간호관련 전반에 관한 내용은 물론, 병동, 외래, 특수파트 등의 시설현황과 운영방법도 소개해 선진화된 간호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한,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통해 방문단과 안암병원 간호부는 친목을 다지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이후, 간호부장단은 3개 팀으로 나뉘어 병원 투어를 실시했다. 한편, 안암병원 간호부는 최근 수년간 JCI를 준비하면서 간호체계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 간호관리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의 탑 클래스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부서 이사람

꽃보다 교환실 - 안암병원의 귀와 입을 들여다 보다.

목소리 이쁘다며 데이트 신청 받기도 해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명희·김미영(교환 및 방송업무) 윤현식·유한영(통신업무) 담당자

안암병원 교환실 내부 전격 해부! 1층 응급실을 지나서 후문쪽으로 가다 보면 통신실이라는 부서명을 보게 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화의 홍수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세상과 소통 하는 그들의 하루

를 잠시나마 경험해 보자. 교환실이라고 하면 말그대로이다.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병원의 특성상 한가지 추가 되는 중요한 업무는 바로 응급방송이다. "5050" 이라는 직통 전화가 있어 관계자들은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하고 필요시 반드시 이 직통번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끔 병동에서 응급 방송이 필요할 때에 "5050" 직통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교환실 번호(0번이나 5114번)를 사용하였기에 외부에서 걸려 온 전화로 인하여 바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혹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기도 한다. 꼭! 응급방송은 5050을 사용해 주길 당부 하였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업무는 밤 10시가 되면 끝나버린다. 4명의 직원이 9시간씩 교차 근무하면서 뜨거웠던 수화기는 점차 그 온도를

되찾아간다. 창문 없는 공간과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것은 오로지 벽시계와 작은 액자가 걸려 있는 벽이지만 그녀들은 침착하게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을 감내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여기는 전화교환 정도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ARS라든지 인터넷 등의 기계적인 것에 너무나 당연시 되어 버린 우리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들이다. 상상해보라! 대부분 ARS나 인터넷을 통하지만 결국은 교환실을 통해야만 궁급증이 해결 되고 원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게 싫다고 직접 찾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외부 고객이 ARS에 지쳐 머리가 아파 올 지경에 찾는 것이 바로 교환실! 때론 만취 상태로, 가끔은 욕설이 난무한 상대방의 공허한 메아리들! 차라리 반말은 애교스럽기까지 하다. 통신실은 교환 및 방송담당 4인방(김명희, 김미영, 강희자, 권영간) 및 통신

업무 2인(유한영, 윤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전화 예절에 어긋나는 전화가 온다고 하여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나아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 안타까운 하소연,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궁금증 등 고객의 질문에 한마디 빼놓지 않고 경청하고 답한다. 절대 대꾸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준다. 그래서 어쩔 때는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며 데이트 신청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 난다. 여기 얼굴 없는 미소 천사들은 전부 미세스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착오 없길 바랄 뿐이다.

교환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먼저 걸려 오는 전화가 연결 되는 것이므로 통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고 연결음만 계속 들릴 때에는 컵에 맴도는 그녀들의 달콤한 목소리를 상상하며 기다려 보자.

글 | 원내기자 류한성 (안전요원실)

웃음, 병을 치유하는 힘!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2월 17일 오후 1시 53병동에서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돕기 위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SK대학생자원봉사자단(Sunny)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마술과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또한 봉사자들은 공연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고 정성껏 만든 풍선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나눠줘 환아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박진영의 '허니', 소녀시대의 '키싱유' 노래에 맞춘 멋진 안무와 마술 공연으로 흥겨움을 더했다. 특히 Sunny팀은 재밌는 분장과 자연스럽고 친근한 연기로 연극 '홍부 놀부전' 을 선보여 환자들에게 커다란 재미와 웃음을 선사했다. 공연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작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람된 일을 계속 하고싶다" 고 말했다. 한편, 공연을 끝낸 봉사자들은 병실로 이동해 환아들에게 직접 사탕과 손난로를 전달하고 참가자 전원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환자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다. 🏠

기적같은 마술로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이은결의 매직쇼

안암병원은 3월 12일 오후 4시(목) 8층 대회의실에서 세계적인 마술사 '이은결(해군홍보단)의 매직쇼' 를 열어 고객 및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해군홍보단을 초청해 열린 이날 마술쇼에서는 내원객과 입원환우 및 보호자, 교직원 등을 비롯한 300여명이 관객이 참석하 가운데 열려 이날 매직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은결 마술사는 약 한 시간동안 끈, 지팡이, 불, 공중부양 등의 다양한 마술을 선보였으며,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해 큰 폭소를 자아냈다. 이 날 관객들은 이은결 마술사의 매직쇼를 보기 위해 공연 30분 전부터 공연장 내는 장사진을 이뤘으며, 매직쇼가 끝난 후에도 열렬한 환호를 보내 앵콜 공연을 보기도 했다. 한편, 이은결 마술사는 고려대의료원의 홍보대사로 위촉된바 있으며, 안암, 구로, 안산 등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다채로운 마술쇼를 수 차례 선보인바 있다. 🏠



심혈관센터 의료진, 명성대로 그 실력도 최고!

1. 김영훈 교수, 전국 대학병원 교수진들로부터 국내 최고의 부정맥 권위자로 인정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김영훈 교수가 최근, 부정맥 치료 부문의 1인자로 선정되어 '네이버_한국인' 과 'OBS방송' 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건강의료포털 '코메디닷컴' (대표 이성주)이 우리나라 대표 검색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의사 100인을 선정해 알리는 프로젝트성 기사를 연중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수는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진들로부터 부정맥 분야 최고의 의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 임도선, 최승철 연구팀, 해외학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심혈관센터 임도선(순환기내과 교수), 최승철(연구교수)연구팀은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뉴욕에 소재한 컬롬비아대학에서 열린 '제 5회 심혈관 줄기세포 국제컨퍼런스' 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수상 했다. 연구팀은 '심근경색 환자 및 정상인 혈액에서 배아줄기세포 마커를 발현하는 성체줄기세포의 구

명' 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통해 그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배아줄기세포 마커를 발현하는 세포가 증진되어짐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심혈관질환자의 말초혈액내에서 배아줄기세포 마커를 발현하는 줄기세포가 증진되어짐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심혈관 질환자의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배아줄기세포 마커를 발현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혈관 질환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3. 홍순준 교수, '중재시술 권위' 인정받아



심혈관센터 홍순준 교수가 최근, 대한중재시술연구회로부터 당뇨병환자에서의 스텐트 재 협착에 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초록상' 을 수상했다. 최근,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열린 '제 9회 한일중재심포지엄' 에서 홍 교수는 '당뇨환자에서 피파감마가 스텐트 재협착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발표한 초록발제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 교수는 관상동맥의 평활근세포의 이동과 증식에 파파감마활성제가 어떤 기전에 의해 재협착에 관여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를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초와 임상의학간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과를 올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고대병원 마라톤 동호회, 나눔도 사랑도 42.195

고려대의료원 교직원 마라톤동호회 '마라톤 KUMC(회장 장형구, 구로병원 원무팀 입퇴원파트장)'는 3월 10일 경제형편이 어려운 한 환우에게 치료비 100만원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한 동호회원을 통해 경제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환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회원들은 그동안 십시일반으로 모은 훈련기금 50만원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임신재 안암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장(효사랑병원장)이 선뜻 기탁한 50만원 등 100여만원의 안암병원 신장내과에서 20여년간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조경식씨(44세)에게 전달했다. 장형구 마라톤 동호회장은 "회원들이 좋은 뜻에 기꺼이 동참해줬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형편에서도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환우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돼서 빨리 쾌유하시길 바랄 뿐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마라톤 KUMC는 2007년 1월 창립되어 지난해 9월 북경국제 마라톤에도 참가하는 등 전체 회원들이 정기적인 훈련과 함께 친목을 다지며 국내외대회 20여차례 참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병원 친절직원을 소개합니다.



안암병원은 2월 18일 오전 9시에 원장실에서 '이달의 친절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달의 친절직원에는 신경과 김정빈 전공의, 61병동 이수진 간호사, 심혈관센

터 김진연 간호사, 인공신장실 박현선 간호사 등 4명이 선정됐다. 친절직원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10만원)과 친절직원배지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한편, 안암병원은 원내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객소리함과 온라인 추천 등 고객관리시스템(VOC)를 통해 접수된 만족사례를 종합평가해 최우수자를 매월 선정하고 분기별로 친절부서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친절리더를 통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및 칭찬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간호부, 상처장루 전문간호과정 실시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장연희)가 3월 9일 오전 9시 8층 중회의실에서 '제 5차 상처장루 전문간호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총 9일간 총 35시간이 이루어지는 이번 전문간호과정에는 원내외 간호사 등 총 9개 기관에서 17명이 참가, 현장에서 상처 드레싱과 장루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처 및 장루관리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 서희원(안암병원), 백은선(안산병원) 상처장루 전문간호사의 심도있고 전문적

인 간호교육을 받게 된다. 손창성 병원장은 "간호부에서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과정을 세심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장연희 간호부장은 "교육생 여러분들이 상처장루 분야의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내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암병원 간호부는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을 목표로 중환자전문간호과정과 상처장루전문간호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간호사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학술대회, 특강 등 각종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수준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소방재난본부와 진료지정병원 협약 체결

안암병원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기환)와 6일 오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소방공무원의 전문 상담·진료·지속적인

예방교육 등 전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안암병원 외에도 서울대 등 서울시내 6개 병원도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6일 오전 9시, 안암병원 장례식장故 강은해 교수 영결식]

추도사

故 강은해 교수를 보내는 의무부총장의 추도사

추도사

사랑하는 강은해 교수님,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존경받는 교수이자 의사로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신 교수님의 영전에 고려대의료원 전 교직원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교수님의 갑작스런 비보에 의료원 교직원 모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 편하게 대화 나누던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의 교수님을 이제 뵈 수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따뜻한 미소와 상냥하고 친절하신 모습으로 환자를 대하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불꽃같은 열정으로 뛰어난 임상역량과 훌륭한 연구업적을 쌓으시며 의료원의 새로운 역사를 일궈내시던 전도유망한 강 교수님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집니다.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아생전 의학발전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세계 도약에 일조하셨던 원대하고 굳은 포부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자신감과 소신이 넘치던 교수님이었기에 지금의 비통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뵈 수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학교와 병원 곳곳에서 환자와 학생들, 그리고 동료, 선배 교수님께 보여주시던 희생과 사랑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강은해 교수님을 보내드리지만 오늘 영결식이 교수님이 소망하셨던 질병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교수님의 못다한 연구를 이어 나가는 구심점이 되길 바랍니다. 주위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한 교수님의 순수함과 열정은 이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으로 희망을 주는 의사로 최선을 다해준 강 교수님의 영전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강은해 교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2009년 3월 6일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오 동 주

고려대의료원, 의료기관 최고의 일자리병원!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에이스클럽' 인증



고려대의료원이 정부로부터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최고의 고용친화적인 병원으로 공식 인증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친화적인 좋은 일자리 기업' (Ace Company Employment Club 이하, 에이스클럽)으로 정식 인정받았다. 이는 의료기관 최초의 인증이며, 유례없이 극심한 경제한파와 채용시장에 불고 있는 각종

악재 속에서 거둔 성과여서 의료계 안 밖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에이스클럽'은 전년도 매년 30명 이상, 3년간 100명 이상의 신규 정규직(경력직 포함)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우 까다로운 선정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야만 인증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는 기업에게만 인증이 허락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 간호사 등 신규 정규직 인력 250여명

을 채용한바 있으며, 지난 5년간 1,00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지난 3년간 1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바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요즘같은 불황기에는 일자리 갯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일자리가 직원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양질의 것인가가 보다 중요하다. 향후에도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좋은 근로조건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의 '에이스 클럽'으로 인증된 기업은 향후 3년간 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특별한 사유 발생시 예외),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재직자훈련 자율점검 등도 면제 받게 된다. 또한, 채용대행서비스, 채용설명회 등 각종 취업 지원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의료원은 일일 외래환자 1만 2천명 시대를 활짝 열며, 각종 경영지표를 싸늘이 갱신하는 개원 이래 최대실적을 올리며 탄탄한 병원 경쟁력을 거침없이 발휘하고 있다. 경영실적이 급상승하고 의료인프라를 고급화 하면서 꾸준한 인력채용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장 근무하고 싶은 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병원 관계자는 내다봤다.

친절리더 칼럼

당신의 따뜻한 말씨와 기분좋은 미소로 고객감동의 시동을 걸어주세요

환자는 교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미소로 말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냥한 말씨와 기분좋은 미소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 간호사, 원무팀 등 고객 접점부서에서의 환자 및 고객응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의미가 크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 | 친절리더 5년동 수간호사 문영순

사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만족 사항은 직원의 실수와 무례함, 약속 미이행, 단정적 거절, 책임전가 등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외부요인도 있겠지만 우리의 실수건 다른 요인이건 불만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을 강구하여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은 현장에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또한, 고객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병원에서 내 역할, 흰 가운의 의미, 처음 입사때의 초심을 지켜나가겠다는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소 소홀하기 쉬운 내부고객인 동료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애정의 표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소소한 안내와 설명이 치료관정의 완결을 도와 완치율을 높여주고 병원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의 귀중한 시간도 절약해 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부터 고객응대와 내부 교직원 분들께도 친절을 실천으로 보이는 진정한 의미의 '친절리더'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고객생활 TIP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용안내 도우미 소책자 발간

"병원에 처음왔는데, 진료예약은 어떻게 해요?", "선택진료가 뭐가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하죠?", "오늘 입원했는데 주차장 이용은 어떻게 하죠?"

병원을 다니다 보면 생기는 여러 궁금증들을 깔끔히 해결해줄 수 있는 소책자를 고객서비스팀에서 수정 보완하여 발간했다. 소책자에는 외래 진료 예약 및 접수 절차부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입원 및 퇴원 안내, 주차장 이용안내, 병원내 편의시설 안내, 층별 배치도 등 병원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관 안내데스크 및 초진상담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도우미의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을 처음 방문할 때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 책은 환자 및 보호자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 선택진료 △ 외래진료예약 안내 △ 외래진료접수 절차도 △ 입, 퇴원안내 △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면회안내 △ 주차장 이용안내 △ 진료비 자동수납기 △ 층별 부서위치 안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글 | 원내기자 이민이(간호부) 간호사
문의 | 고객서비스팀 (02) 920-5883



T형 인간들이 모인 □형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 |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

“한 우물만 파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한눈팔지 말고 어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야 성공을 할 수 있다.” 는 뜻으로 고금의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다원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신의 영역에서 한 우물을 파되 주위와의 폭넓은 인맥을 쌓아야 한다는 T형 인간 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T형 인간 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I에 가로축을 더한 T형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바로 자신의 역량에 합당한 자기개발로 쌓고 늘린 균형 잡힌 인맥을 뜻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인맥은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자라지 않는다.” 는 사실입니다. 본 분야의 권위자인 ‘호리 고 이치 도’ “인맥만 무리하게 늘린다면 그것은 남의 권력을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지 않으면서 줄만 잘 서려는 분들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자리매김됨

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해당 공동체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공동체가 발전하고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두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능력과 인맥을 지닌 T형 인간 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암병원아 T형 인간 들이 모인 □형 공동체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T형 인간 들이 모여 서로 잘 낚다고 머리를 쳐들어 해당 공동체가 ㄱㄱㄱㄱ의 모양이 됨으로써 구성원 서로의 가슴에 못질을 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T형 인간 들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여 감싸주는 ㄱㄱㄱㄱ의 모양을 이루면 “서로의 가슴이 못질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공동체가 훨씬 발전하고 더 따스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T형 인간 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ㄱ의 모양을 이루면 □의 모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는 한자로 ‘말을 하는 입’ 을 뜻합니다.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 우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이 능력과 인맥을 지닌 T형 인재 들이 많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형 공동체 를 이루으로써 “언로가 막히지 않고 따스하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안암병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 답니다. ㄱ

환자를 설레게 한 바로 그 의사! 신경과 김정빈 전공의, 이달의 베스트 친절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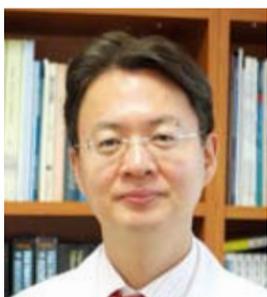
안암병원은 지난 2월 18일 오전 9시에 원장실에서 '이달의 친절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달의 친절직원에는 신경과 김정빈 전공의(왼쪽에서 네번째 노란색 모자 쓴 사람)를 포함한 4명의 교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고객소리함과 온라인 추천 등 고객관리 시스템(VOC)를 통해 접수된 만족사례를 종합평가해 최우수자를 매월 선정하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직원이 매월 수상하고 있다. 김정빈 전공의는 대학생인 박세은 양의 맘을 설레게한 주인공이다. 박 양은 평소 손저림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입원해 집중치료 후 퇴원했다. 박 양은 친절카드를 통해 “저는 외래진료 중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되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오래 기다리던 중에도 자주 외주셔서 걱정도 해주시고 눈도 맞추어 주시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김정빈 선생님 ㅠ.ㅠ 너무 좋아요 ㅋ ㅋ 완존 팬이예요 부끄러워서 별로 표현은 못했지만 ㅜㅜ” 이라며 김정빈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ㄱ

고대 안암병원과 아웃백 동묘역점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의학정보

환절기 불청객 ‘황사(黃砂)’

건조한 날씨에 더욱 심한 황사질환의 종류와 예방법



글 | 호흡기내과 이상엽 교수

▲황사란?
한반도에서 3월말~4월 사이 어김없이 발생, ‘봄의 불청객’ 으로 불리는 황사는 보통 봄철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중국 북부의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및 황하 상류 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3천~5천m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정도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이다. 황사는 실리콘(석영), 알루미늄, 구리, 카드뮴, 납 등으로 구성된 흙먼지가 주성분으로 이 현상이 발생하면 하늘색이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시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빨래와 음식물은 물론 대기까지 오염시켜 눈병,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호흡기내과 이상엽 교수는 “황사는 중국 발원지에서는 20μm보다 큰 입자가 관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관측되는 크기는 1~10μm 정도의 미세먼지다. 황사발생시 대기중의 먼지 농도는 평소의 4~5배에 이르는데 이 미세

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기도를 자극해 기침이 나게 하거나 가래나 염증을 일으키며, 심지어 기관지 벽을 헐게하고 협착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사망률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농도가 1m³당 10μg이 늘어날 경우 1일 사망률이 1%씩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고 말했다. 이처럼 황사는 감기 천식 후두염등 호흡기 질환과 자극성 각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건성안 등 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황사현상이 심한 3~4월 전후에는 야외운동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황사로 야기되는 질병들

황사가 건조한 날씨와 맞물리게 되면 심한 감기, 후두염, 천식 등의 질환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상엽 교수는 “이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호흡기의 일차방어막인 코와 기관지점막이 말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 이라고 말하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때는 겨울철 집안 습도를 조절해준 기습기를 조금 더 내놓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아울러 황사는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안구를 자극해 자극성 각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건성안에 이르기까지 각종 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황사 예방법

황사에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황사주의 일기예보를 잘 듣고 황사현상이 심하면 가급적 외출을 가며, 꼭 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입자가 통과할 수 없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는 수분크림을 발라 피부 보호막을 만들고, ▲호흡기의 방어작용을 약하게 하는 흡연은 삼가거나 흡연지역을 피하며,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위생습관에서는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하여 점막을 통한 호흡기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도록 한다. ▲귀가 후에는 집 앞에서 옷을 잘 털고, 손을 씻거나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며, 양치질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피로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들도록 한다. 또한 기도의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물이나 차를 마시도록 한다. 만일 뚜렷한 원인 없이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황사에 의해 천식 및 만성 폐질환 등이 악화되어 호흡곤란 등을 느낄 때에는 바로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ㄱ

문의 | 호흡기센터 02) 920-5111

